

의견서

공판 2부 26 합의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975호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로서 중요한 증거 확보를 요청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한 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피의자는 2025년 3월 16일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그날 흥대입구역 인근에서 함께 과도하게 음주하였습니다. 16일에서 17일 새벽 무렵, 술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의자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며 제게 집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중 피의자는 “맥주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뒤 집에 도착해서 함께 마셨습니다. 저는 이를 마신 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습니다. 이후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반쯤 쓰러진 상태였지만, 의식은 남아 있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피의자는 웃으며 “너에게 과음을 하게 만든 것 같다, 괜찮냐”라고 말하며 등을 두드린 뒤, 침대에 눕도록 권했습니다. 이후 “몸이 차다”며 몸을 주물러주는 과정에서 제 가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피의자는 “귀가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2. 다음날 상황

다음날 친구와 통화하며 저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었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실눈을 떴는데, 피의자가 내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있었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놀리려는 의도였는지 의심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다음날 피의자가 공연 게스트로 섭외를 도와주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즉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 소리와 가슴 접촉 등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설불리 추측하기에는 교수의 지위와 업계 내 영향력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고,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3. 추가 정황

2025년 5월 23일, 피의자의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6월 21일 사건 당일과 유사하게 필름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 사건과 매우 흡사한 정황으로, 피의자가 단순 초범인지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와 심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제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의자가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당일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평소와 다른 점을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게 “이 휴대전화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사건 당일 사용한 휴대폰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수를 파악하고, 사건 관련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 있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출된 휴대폰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재포렌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